



제주SK FC 후반기 상위권 도약 노린다

K리그1, 월드컵 휴식기 끝내고 주말 리그 재개
제주SK FC 현재 8위... 5일 11위 김천 원정경기
9월 초까지 연속 홈경기 예정돼 '승수쌍기' 도전

2026 북중미 월드컵 휴식기를 마무리한 K리그1이 4일부터 리그 일정을 재개한다.

한 달 보름여 만에 다시 시작되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16라운드의 관전포인트는 선두 FC서울과 6위로 선전하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인 더비'로 쏠린다.

서울은 오는 5일 오후 7시 30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인천과 K리그1 16라운드를 펼친다.

월드컵 휴식기를 앞두고 2연승을 내달렸던 서울은 이번 주말 인천과 16라운드를 앞두고 3연승 질주와 함께 선두 질주에 방점을 찍겠다는 각오다.

제주SK FC도 오는 5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김천 상무(11위)와 '하나은행 K리그1 2026' 16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전반기 5승 3무 7패 승점 18로 리그 8위로 마감한 제주SK는 승점 26으로 리그 2위와 3위에 위치한 울산과 전북은 따라잡기가 쉽지 않지만 승점 24로 리그 4위를 달리는 강원과의 경우 연승만 올리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제주SK는 월드컵 휴식기 동안

수비 조직력과 공격라인을 재점검하며 상위권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반기 제주SK의 득점력은 13골로 선두를 달리는 서울 27골과는 10골 이상 차이나는 등 광주와 포항에 이어 최하위권 수준이다. 실점도 16골로 리그에서 가장 적은 강원 10골보다 많아 득실에서 -3으로 광주, 김천, 부천에 이어 네번째로



지난 5월 17일 제주SK FC와 안양의 리그 15라운드 경기 모습.

제주SK 제공

로 하위권에 처져 있다.

후반기 제주SK는 2골로 팀내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네게바와 박창준, 신상은, 최병욱의 부활이 절실하다.

이와함께 남태희와 이탈로, 권창훈, 이창민 등 허리라인을 비롯해 장민규와 김륜성, 세레스틴의 수비라인의 분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SK는 지난 시즌 1무 2패, 올 시즌에도 1무로 부진을 겪고 있는 김천을 상대로 후반기 첫 라운드를 기분좋은 승리로 출발,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놓겠다는 각오다.

특히 올해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체전 때문에 9월 5일 이전까지 연속적으로 홈경기가 열리는 만큼 이 기간 최대한 승수를 쌓아 향후 원정 경기를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제주SK 관계자는 "7월 하순부터 코리아컵과 8월 초 원정 친선경기가 이어지는 등 일정이 빠듯하지만 코스타 감독과 선수단이 최대한 승수를 쌓을 수 있도록 월드컵 휴식기 준비를 많이 했다"고 했다.

한편 올 시즌 제주에 입단 후 7경기에서 도움 1개에 그친 리투아니아 국가대표 기티스는 2일 전북 현대로 전적 임대 이적했다.

위령성기자 yswi1968@ihalla.com



2일 (한국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방문 경기 5회말 송성문 선수가 솔로 홈런을 친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성문, 빅리그 첫 대포

2일 시카고컵스 원정 경기
5회말 두번째 타석서 홈런

송성문(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빅리그에서 첫 대포를 터뜨리며 시즌 세 번째로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날렸지만, 팀은 무려 20점 차로 대패했다.

송성문은 2일 (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시카고 컵스와 방문 경기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홈런 1개 포함 4타수 2안타를 치고 타점과 득점 1개를 올렸다.

3회 첫 타석에서 우익수 쪽 2루타로 기세를 올린 송성문은 0-9로 끌려가던 5회 선두 타자로 나와 우측 펜스를 총알처럼 넘어가는 메이저리그 통산 첫 홈런으로 팀의 첫 득점을 냈다.

시속 173km의 속도로 117m를 날아갔다.

송성문은 6회와 8회에는 각각 좌익수 뜬공,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다. 송성문이 멀티 히트를 친 건 지난달 7일 뉴욕 메츠와의 경기 이래 근 한달 만이다. 시즌 타율은 0.233, 타점은 9개다.

샌디에이고는 선발 투수 위커 볼러가 3개, 한국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출신 카일하트가 3개, 포수로 뛰다가 패전 처리로 마운드에 오른 로돌포 두란이 2개의 홈런을 허용해 홈런 8개와 안타 17개를 얻어맞고 3-23으로 크게 져 5연패를 당했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치른 방문 경기에 6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치고 타점 1개에 득점 2개를 올렸다. 시즌 29번째 멀티 히트를 친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319로 올랐다.

연합뉴스



19일 (한국시간) 열린 멕시코전에서 이재성이 득점 찬스를 놓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승리의 기쁨 아닌 패배의 아픔 전해 죄송”

이재성 팬들에게 사과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 이재성(마인츠)이 실망한 국내 팬들에게 사과의 말을 남겼다.

이재성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월드컵 기간 저와 대표팀을 향해 진심 어린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월드컵 일정을 끝내고 손흥민(LAFC) 등 대표팀 동료들과 1일 새벽 귀국한 이재성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며 “승리의 기쁨이 아닌 패배의 아픔을 전해드리게 돼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재성은 체코와 1차전 및 멕시코와 2차전에 선발 출전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마지막 3차전에선 벤치를 지켰다. 공격포인트는 따내지 못했다.

이재성은 “상상하지 못했던 결말이라 지금은 받아들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하지만 다시 여러분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연합뉴스

위닉스 얼음정수기 출시 이벤트

행사기간 —————
6/1(월) ~ 7/31(금)
480,000원 할인
* 5년약정 / 월34,900

출시 이벤트
약정6년 → **약정5년**
월임대료 42,900원
→ **34,900원**
(월 8,000원씩 할인)
렌탈등록비 ₩100,000원 면제

₩100,000원 면제

제주도 전지역 무료배송

제습기 보상판매 17L / 22L

DXAE120-NEK
(12L)
360° 회전 휠
일일제습 12L
원통, 오픈스텔, 작은방
₩299,000
₩**259,000**

DXSM170-IWK
(17L)
360° 회전 휠
풍량개선 12.5%이상(120° 회전 시)
원통 하단 버켓(한 손으로 탈착)
히트 손잡이
₩429,000
₩**359,000**

DXWE228-OYK
(22L)
360° 회전 휠
UVC안살균균
정지 시 자동건조 기능
프리미엄 저소음 인버터
어플로직 # 집중건조기능 포함
₩489,000
₩**459,000**

구입문의 | 제주위닉스 총판 및 A/S센터 · 제주노비타 총판 및 A/S센터 064)758-0990~1 제주시 연삼로17(연동)

삼성
서비스센터
신광로터리
● 립스

WİNIX
novita
● 오양병원
신제주로터리

▲ 공항
마리나사거리
● 마리나호텔